

	강원문화재단 보도자료	배포일	2023년 12월 12일(화요일) 오전 7:00
		부서명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
		담당자	대리 이주혜(033-240-1363)
		홈페이지	www.gwcf.or.kr / mpyc.kr

2023 대관령음악제 마지막 공연, **강원의 사계 <겨울> ‘양상블블랭크’** 12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려

- 현대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강원의 사계 <겨울> ‘양상블블랭크’**
- 제네바 국제콩쿠르 작곡부문 최연소 1위 작곡가 최재혁이 이끄는 양상블블랭크,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프로그램 선보여
- 기획공연 ‘강원의 사계’ 4회 추진하며 강원특별자치도민 비롯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

□ 올해 20주년을 맞아 더욱 단단한 축제로 성장하며 뜻깊은 한 해를 보낸 대관령 음악제가 오는 15일(금) 오후 7시 30분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기획시리즈 **강원의 사계 <겨울> ‘양상블블랭크’** 공연을 끝으로 2023년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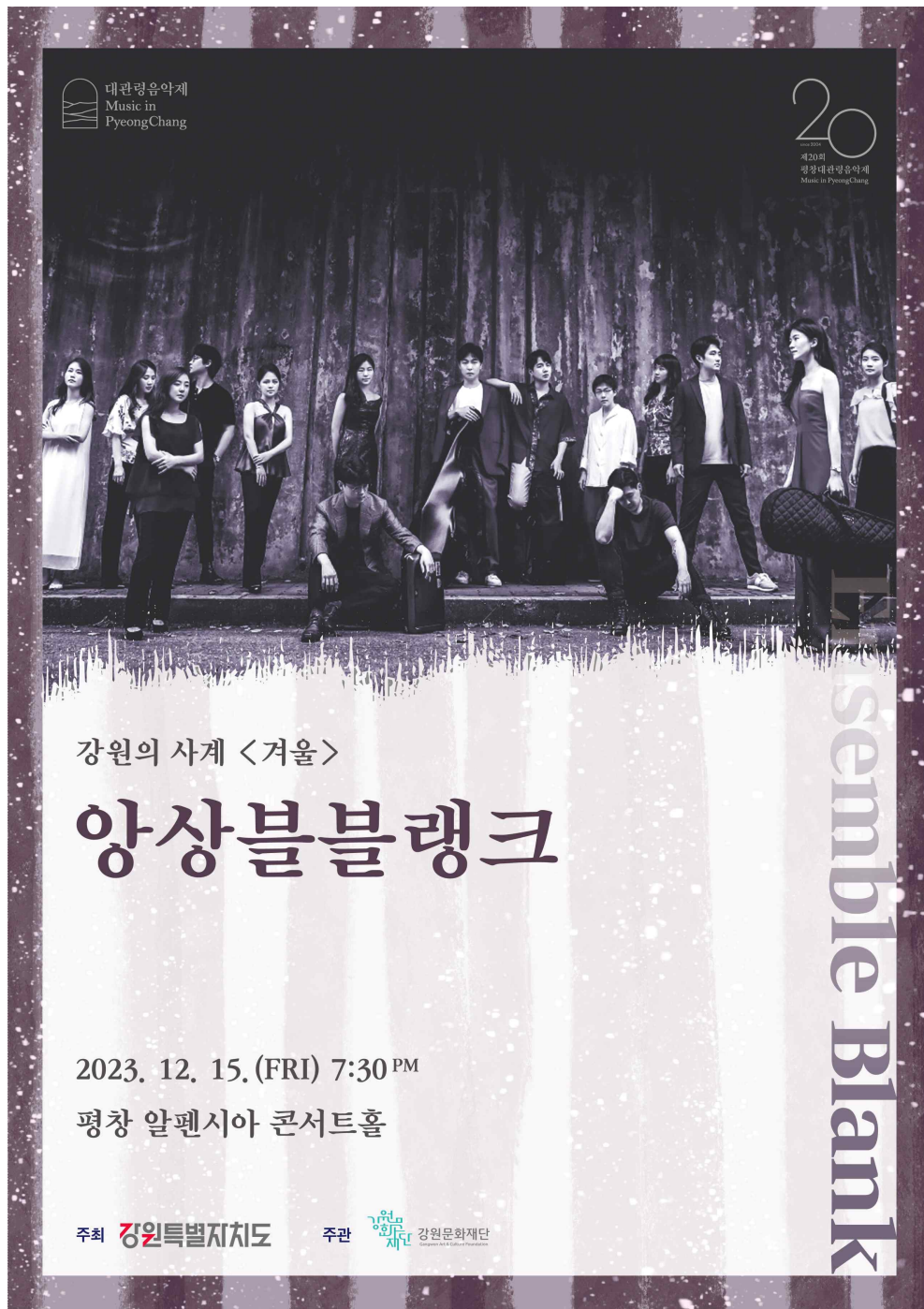
□ 양상블블랭크는 ‘새로운 아름다움’, ‘익숙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대중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로 이번 공연에서는 김예지, 박재준, 정희연, 김기환(바이올린), 이호찬, 배성우(첼로), 유이삭(더블베이스), 조철희(플루트), 이현옥, 강다해(오보에), 김길우, 김진수(클라리넷), 김보영(피아노) 등 22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이들을 이끄는 음악감독 최재혁은 지난 2017년 제네바 국제콩쿠르 작곡부문에서 최연소 만장일치 1위 수상, 2018년에는 런던심포니와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촉망받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 이번 **강원의 사계 <겨울>**에서 양상블블랭크는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전 시대 음악으로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제10번 B플랫장조’,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1번 C장조’를 선보인다. 특히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 배성우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배성우는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학·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콘체르트엑자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뒤스부르크 필하모닉, 본 필하모닉, 도르트문트 필하모닉 등과 협연을, 국내에서는 대전시향, 천안시향, 강남심포니,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을 역임하였다. 현대음악에서는 베아트 푸리의 ‘무성’, 찰스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레베카 손더스의 ‘분노 I’, 존 아담스의 ‘실내악 교향곡’을 선보이며 현대음악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 ‘강원의 사계 <겨울> 앙상블블랭크’ 공연은 음악제 홈페이지(mpyc.kr/tickets)와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전석 5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 초·중·고·대·대학원생,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경로 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본인 및 동반 1인)이 적용되며,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30% 할인(본인 및 동반 1인)이 적용되고, 음악제 홈페이지(mpyc.kr)를 통한 예매 시 10%가 적용된다. 모든 공연 및 티켓(단체구매) 관련 문의는 대관령음악제 운영실(033-240-1364)로 문의하거나 음악제 홈페이지(mpy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음악제 홈페이지(mpyc.kr/연중기획시리즈-2023 강원인사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문화재단 대관령음악제운영실 대리 이주혜(☎033-240-13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앙상블블랭크 ©대관령음악제운영실



예술감독 최재혁 ©대관령음악제운영실



협연자 배성우(첼로) ©대관령음악제운영실